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 신부 : 정대웅(요한보스코) • 보좌 신부 : 김찬미(가비노)
사목회장 : 서영찬(프란치스코) 267-471-9048 •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Mass		성사 · 면담	
Weekday	PM 8:00 (Tuesday · Thursday)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00
Saturday	PM 8:00	축성 (차량, 집)	항 시 가 능
Sunday	AM 7:00, 10:00(교중)	고 백 성 사	미사 시작 전 20분
	AM 11:30 (Sunday School Vacation until Jan. 26)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청년 미사)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오늘의 전례

입당 성가 : 489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제 1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 37,12ㄹ-14
화 답 송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제 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8-11
복음환호송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복 음 : 요한 11,1-45
봉헌성가 : 340 봉헌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성체 성가 : 170 자애로운 예수
160 하느님의 어린 양
파견 성가 : 49 옹기장이

미사 지향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오전 7시	연	백영기(안드레아)	가족	영원한 안식
	생	이응곤(마태오)	대자	영육간 건강
오전 10시	연	공선유(프란치스코)	가족	영원한 안식
		김정용(레안데르)	가족들	
		김보필(요나단)	김도호	
		박재철 김창세(요한)	윤영숙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오전 10시	연	김기형(요셉)	가족	영원한 안식
			박원규	
		이정언(베드로)	허수원	
	생	이준영(멜키올)	가족	건강 회복 주님 은총 축복
		최천웅(안토니오) 서춘자(율리안나)	가족	
		임성택(베드로)	임종민	
		이림영(앤디킴 가정)	이규복	주님 축복 영육간 건강

생명의 말씀

"부활이요 생명" (요한 11,25)

요한 복음의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겪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 예루살렘 인근 베타니아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복음의 많은 등장인물들은 죽음과 관련되어 각각 다른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죽음을 겪은 라자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 유다 지역에 들어온 제자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의 죽음을 막으셨을 것이라 믿는 마르타와 마리아, 치유는 가능하면서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느냐는 주변 사람들까지. 그들의 질문에 논리적인 정답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두고 나름의 답을 주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음을 다시없는 인간의 한계로 여기면서 '죽음 앞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답으로 삼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죽음이 없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 죽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실제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함을 보이십니다. 결국, 마지막 원수인 죽음은 정하신 때에 극복되겠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넘어 하느님의 생명에로 마음을 정향하고 관심을 쏟게 됩니다. 부활의 희망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희망은 그 희망을 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며, 죽음을 지나쳐 영원한 행복에로 나아가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곧잘 고통과 죽음에 압도되어 그것들이 나타나면 도저히 거기서 눈을 뗄 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은 설명되지 않는 고통으로 점철된 것 같고, 하느님은 가끔씩은 도와주셔도 정작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강조점은 보통 십자가의 고통에 귀착됩니다. 하느님은 그저 십자가를 지도록 요구하시는 분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생명을 건너다 보게 해 주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겪는 이유는 그것이 주어진 십자가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부활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으니 악으로 깡으로 버텨보겠다는 절망스러운 상황의 표현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리키는 부활과 생명에로 내 마음을 붙들어 매겠다는 희망스러운 결단의 표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에 대한 희망 가운데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 자체를 사랑하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그 초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도록 주어진 선물의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손경락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 금주의 영명 축일자 – 축하합니다!

3월 30일	**케니** : 남상욱
4월 3일	**리차드** : 윤리처드 **이레나** : 한이나 김경옥
4월 4일	**이시도로** : 허일 윤인구

공지사항 · 공동체 소식

♡필라델피아 대주교님 Nelson J. Perez 공지 사항입니다

필라델피아 교구 내 모든 성당은 평일, 주일 모든 미사는 추후 다시 공지가 있을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성되는 성지가지는 배부되는 과정에서의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당에서 보관하며 나중에 교우분들에게 배부합니다
* 성삼일 전례 및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도 없겠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는 없지만 매 주일 오전 11시 live streaming broad cast (라이브 방송)으로 대주교님이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필라 교구 웹사이트 http ://archphila.org covid 19/나 Archbishop Perez's Faceboo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청하는 기도와 묵주 기도를 각자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맞이 성당 대청소 취소되었습니다

4월 5일(주일) 예정된 성당 대청소는 취소되었습니다

♡영수증 모으기 안내

한아름 2월-3월 영수증 마감 날짜 : 4월 12일(주일)

* 마감 날짜 이후로 들어오는 영수증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아씨 : 11월 4일(월)부터 물건 구입시 성당 번호 **"89020"**이나 **"성당"**이라고 말하면 영수증에 대한 수익금이 성당으로 적립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식당 영수증 모으기 안내

본가 , 서라벌, 토담골, 뮤타, 코리아 가든, 코리안 바베큐, 상하이, 코코카페, 종가집, 고향산천, 5가 파리 제과, 고기 BBQ(옛한촌), 수라, 소 코리안 그릴(옛힐링포차) 영수증의 3% 수익이 됩니다.

* 위의 식당 명단에 이름이 없는 곳은 영수증 수익금을 주지 않습니다
* 꽁트 헤어 살롱은 영수증의 3% 수익이 됩니다
* 각 업소의 영수증은 꼭 성당 입구에 있는 영수증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 납부는 가장 먼저, 제 달에, 기쁘게 봉헌합시다!